

생명당,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9. 7. ~ 9. 13.

전남농업정보

50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백다다기오이, 수박 재배의향 속보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류(양배추·감자), 과일(감귤·포도) 가격동향

시군 농정동향

양봉산물 시제품 개발로 양봉농가 소득 다양화 추진
2015 대한민국 한평 정원 디자인 展
최고품질 단감생산 현장 교육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콩 부산물, 갯년기 증상 개선 식품 소재로 개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2호 발표

정책동향

전남 유기농, 수도권 소비자 산지체험 활발
농식품부·설빙·농정원, 쌀 소비 촉진 위해 손잡다!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2015. 9. 7)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기압골의 영향으로 12일 오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4~21도, 최고기온: 26~27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4~9mm)과 비슷하겠음

☼ 농작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백다다기오이, 9~10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증가, 11월은 비슷
- 수박, 9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 10월은 증가 전망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양배추 · 감자

- 양배추 : 평년보다 낮은 5,500~6,500원이 될 것으로 전망
- 배 추 : 평년과 비슷한 18,000~23,000원 수준으로 전망

▶ 과 일 : 감귤 · 포도

- 감 귤 : 전년보다 높은 kg당 4,200~4,600원으로 전망
- 포 도 : 캠벨얼리는 전년보다 높은 13,000~15,000/5kg 으로 전망
거봉은 전년보다 높은 8,000~9,000/2kg 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보급, 친환경 유용미생물 인기 상종가 ↑
- ▶ 양봉산물 시제품 개발로 양봉농가 소득 다양화 추진
- ▶ 2015 대한민국 한평 정원 디자인 展
- ▶ 최고품질 단감생산 현장 교육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특별팀(TF)', 對중국 수출애로 해소
- ▶ 국산 참다래 품종, 로열티 받고 수출
- ▶ aT,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전남 유기농 쌀 인기 높아진다
- ▶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생산비 절감과 농부증 예방 효과 뚜렷
- ▶ 콩 부산물, 갱년기 증상 개선 식품 소재로 개발
- ▶ 귀뚜라미, 우리 식탁 먹거리로 오른다
- ▶ 친환경 윤작재배에 알맞은 풋거름 작물 심으세요!
- ▶ 한방복합추출물 기억력 장애와 치료 효능 입증
-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2호 발표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423곳...성공 예감
- ▶ 전남 유기농, 수도권 소비자 산지체험 활발
-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후속조치,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 조성
- ▶ 농식품부·설빙·농정원, 쌀 소비 촉진 위해 손잡다!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대만, 외식산업 동향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최근 연래 최저가격 가까이 하락세 후 숏커버링과 새로운 계약 등으로 반등에 성공함
 - 옥수수 선물가격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후 숏커버링과 노동절에 따른 휴일 등의 영향으로 반등함, 특히 동부 옥수수 벨트 지역의 수율이 낮을 것으로 보여 반등세 지속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
 - 대두 선물가격은 노동절에 앞서 숏커버링과 최근 미국 대두 수출 판매 등의 영향으로 장중혼조세를 보이다 약보합 마감함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2016년도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

- 개최일시 : 2015. 10. 13.(화) 10:00~17:30
- 장 소 : 농업기술원 연구동 세미나실
- 참여대상 :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
- 주요내용 : 2016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지원 사업 발표 및 심사

▶ 가을바람과 함께 넉넉해지는 9월 농촌축제

- 축 제 명 : 천생연분마을 연꽃축제(연으로 맺은 아름다운 인연)
- 기 간 : 2015. 9. 5.~9. 6.
-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천생연분마을 일원
- 주요행사 : 연꽃가마퍼레이드, 연음식 콘테스트, 천생연분 이벤트 등
- 문 의 처 : 031-855-6223

- 축 제 명 : 2015 함안 범수산 권역 해바라기축제
- 기 간 : 2015. 9. 5.~9. 6.
- 장 소 : 경남 함안군 범수면 강주리, 황사리 등 5개마을 일원
- 주요행사 : 마을주민 회차(모꼬지) 한마당 축제, 해바라기 축제 등
- 문 의 처 : 위원장 010-7304-1332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9. 7.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9/7)	전주 (8/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133	↓ 6.6	↓ 3.2
	콩(백태)	35kg	137,000	137,000	139,000	142,000	193,500	↓ 3.5	↓ 29.2
	고구마(밤)	10kg	25,200	27,600	32,200	25,250	28,243	↓ 0.2	↓ 10.8
	감자(수미)	20kg	25,200	25,200	25,400	23,200	26,580	↑ 8.6	↓ 5.2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600	660	-	910	1,203	↓ 34.1	↓ 50.1
	양배추	10kg	7,100	7,200	6,950	4,845	10,110	↑ 46.5	↓ 29.8
	오이(다다키계통)	10kg	19,000	23,667	24,500	26,056	35,008	↓ 27.1	↓ 45.7
	애호박	8kg	15,600	15,800	22,850	19,650	29,010	↓ 20.6	↓ 46.2
	토마토	10kg	23,000	18,600	16,400	17,100	31,230	↑ 34.5	↓ 26.4
	무(고랭지)	20kg	9,600	9,800	-	11,700	17,627	↓ 17.9	↓ 45.5
	당근	20kg	32,000	31,200	30,700	55,000	39,490	↓ 41.8	↓ 19.0
	건고추(화건)	60kg	830,000	850,000	820,000	889,000	954,267	↓ 6.6	↓ 13.0
	풋고추	10kg	24,200	24,200	24,400	71,050	55,283	↓ 65.9	↓ 56.2
	마늘(난지)	10kg	45,400	45,000	46,450	33,400	35,300	↑ 35.9	↑ 28.6
	양파	20kg	28,000	28,000	27,500	10,520	17,503	↑ 166.2	↑ 60.0
	대파	1kg	1,930	1,990	1,990	1,460	2,082	↑ 32.2	↓ 7.3
	파프리카	5kg	22,400	19,200	13,000	32,150	36,980	↓ 30.3	↓ 39.4
	방울토마토	5kg	16,200	15,000	13,200	9,950	23,480	↑ 62.8	↓ 31.0
수박	1개	12,800	12,800	15,250	8,500	15,147	↑ 50.6	↓ 15.5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	-	67,000	-	57,200	-	-
	배(신고)	15kg	33,200	30,200	39,600	47,200	45,610	↓ 29.7	↓ 27.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9/7)	전주 (8/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2,000	525,000	555,567	↑ 1.0	↓ 4.6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38,000	342,600	↓ 4.1	↑ 22.6
	새송이버섯	2kg	7,800	7,800	7,050	8,650	9,478	↓ 9.8	↓ 17.7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516	7,393	7,164	6,955	6,687	↑ 8.1	↑ 12.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54	2,163	2,233	2,128	1,906	↑ 1.2	↑ 13.0
	닭고기	1kg	5,224	5,133	5,172	4,910	5,556	↑ 6.4	↓ 6.0
	계란(특란)	30개	5,739	5,763	5,758	5,852	5,617	↓ 1.9	↑ 2.2
	우유	1리터	2,547	2,547	2,548	2,549	2,359	↓ 0.1	↑ 8.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9. 7.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379 천원	5,741 천원	4,542 천원	↓ 6.3	↑ 18.4
	거세	6,972 "	6,917 "	5,648 "	↑ 0.8	↑ 23.4
송아지 (6~7월)	암	2,763 "	2,720 "	1,928 "	↑ 1.6	↑ 43.3
	수	3,410 "	3,434 "	2,737 "	↓ 0.7	↑ 24.6
육우(600Kg)		3,534 "	3,395 "	3,114 "	↑ 4.1	↑ 13.5
젓소수송아지(7일령)		300 "	300 "	19 "	-	↑ 1478.9
돼지(110kg)		427 "	452 "	399 "	↓ 5.5	↑ 7.0
육계(원/kg)		1,057 원	1,138 원	1,229 원	↓ 7.1	↓ 14.0
계란(원/특란10개)		1,257 "	1,207 "	1,393 "	↑ 4.1	↓ 9.8
오리(원/kg)		2,166 "	2,333 "	2,166 "	↓ 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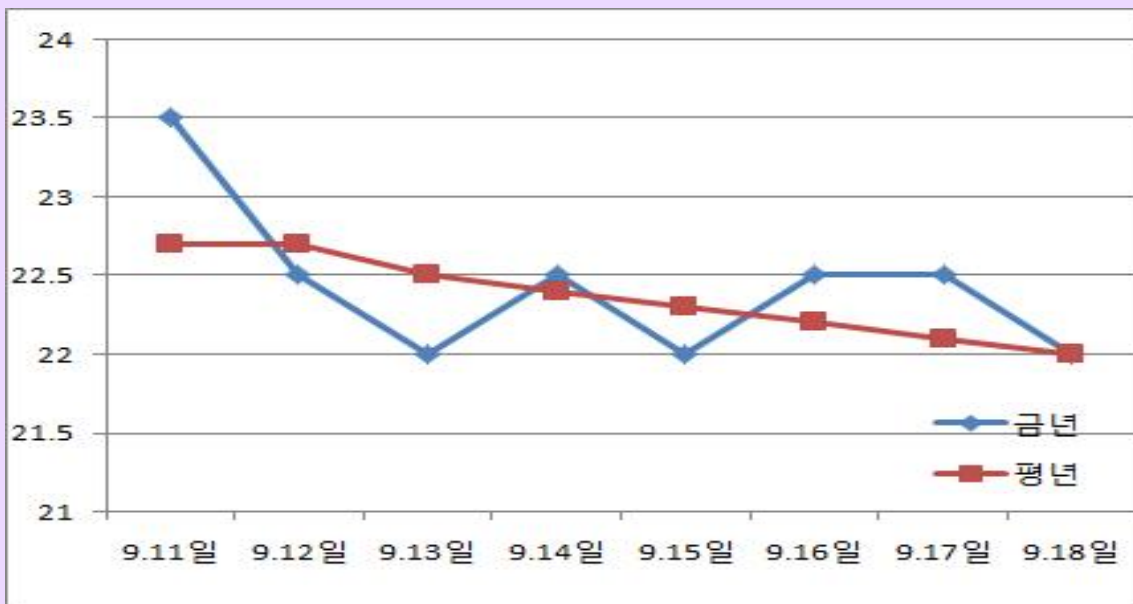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2.4	22.4	0.1	25.9	26.9	-1.0	19.0	19.0	-0.1	5.3
9. 11.(금)	23.5	22.7	0.8	27	26.9	0.1	20	19.7	-0.3	4.4
9. 12.(토)	22.5	22.7	-0.2	25	26.9	-1.9	20	19.5	-0.5	3.9
9. 13.(일)	22	22.5	-0.5	25	26.8	-1.8	19	19.3	0.3	5.4
9. 14.(월)	22.5	22.4	0.1	26	26.8	-0.8	19	19	0	5.6
9. 15.(화)	22	22.3	-0.3	26	26.9	-0.9	18	18.9	-0.9	5.4
9. 16.(수)	22.5	22.2	0.3	26	26.9	-0.9	19	18.7	0.3	5.6
9. 17.(목)	22.5	22.1	0.4	26	26.8	-0.8	19	18.5	0.5	6.1
9. 18.(금)	22	22	0	26	26.8	-0.8	18	18.4	-0.4	5.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2. 농산물 재배 동향

백다다기오이·수박 재배 동향

- 백다다기오이, 9~10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증가, 11월은 비슷
 - 9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공주에서는 토마토 재배농가가 백다다기오이로 일부 작목 전환이 있겠으며, 충남 천안에서는 재배면적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여수, 해남의 일부 농가에서는 취청오이로 품목 전환이 있겠으나, 경북 상주에서는 신규 재배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정식면적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억제작형 확대로 축성재배면적이 일부 감소하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박, 9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 10월은 증가 전망
 - 9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창녕과 의령에서는 정식의향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정식면적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10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출하기 가격이 높아 주 정식지인 경남 함안에서 정식면적이 확대되고, 일부 정식시기도 10월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11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출하기 가격 강세로 경남 함안, 의령에서 소폭 증가하겠으나, 10월로 정식을 앞당기려는 농가가 일부 있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양배추 · 감자

○ (양배추)

- 9월 양배추 도매가격은 평년(7,286원)보다 낮은 5,500~6,5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 자)

- 9월 도매가격은 평년(22,363원/20kg)과 비슷한 18,000~23,0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과 일 : 감귤 · 포도

○ (감 귤)

- 전년보다 높은 kg당 4,200~4,600원으로 전망된다.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석 성수기에 가격이 일시 상승하겠으며, 품질도 좋아 평균적으로 전년보다 가격은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 도)

-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전년(1만 3천원)보다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3,000~15,000원으로 전망된다.
- 거봉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석 시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8천원)보다 높은 상품 2kg 상자에 8,000~9,000원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보급, 친환경 유용미생물 인기 상종가 ↑

- 광합성균 등 6종 매일 분양, 장흥군민에게 1당 300원 보급 -

- 장흥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에서 농가에 보급중인 친환경 유용미생물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다.
- 유용미생물은 토양내의 염류 집적 해소, 퇴비발효, 작물의 성장촉진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주며,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친환경 농업의 필수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이에 따라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상시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8일에는 광합성균 활용방법 교육을 통하여 후기 벼 등숙을 향상시키고, 여름철 축사악취를 감소시키는 기술 공유로 친환경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 또한 지난해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 4종을 보급해 왔던 것을 연초부터는 축사 악취저감에 탁월한 질화세균을 포함 6종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다.
- 김영모 농업축산연구과장은“유용미생물 공급은 생명이 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고, 축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많은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 출처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양봉산물 시제품 개발로 양봉농가 소득 다양화 추진

- 블루베리 크림꿀 등 3종 시제품 개발, 관능평가 실시 -

- 장흥군(군수 김 성)은 양봉산물인 벌꿀의 활용 및 응용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에 적합한 제품 개발 연구를 통해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양봉농가 소득다양화, 양봉산물 생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시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벌꿀은 장기간 보관하거나 포도당 함유비율이 높아 장기간 보관하는 과정에 결정이 생겨 꿀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양봉농가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정이 되지 않아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드러운 크림타입으로 흘러내리지 않은 식용이 간편한 크림꿀 등의 제조 방법을 년초부터 연구개발을 하여 왔다.
- 또한 일반 크림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나 젊은 여성의 기호도에 맞춰 과일 동결분말을 첨가한 블루베리 크림꿀, 딸기 크림꿀 등을 개발하였으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꽃가루가 첨가된 크림꿀 등 총4종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 개발한 시제품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그중 블루베리 크림꿀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관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토요일 시장 및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회를 열어 장흥산 벌꿀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 제해신 장흥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연구사업 추진으로 결정꿀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단순 벌꿀 판매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크립꿀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2015 대한민국 한평 정원 디자인 展

○ 정원이라고 하면 규모 있는 저택을 먼저 떠올린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정원은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등으로 정원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원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아름다운 정원은 도시의 경관을 푸르게 만들어주고, 감미로운 꽃향기와 싱그러움 풀 냄새는 메말라 있는 도시민의 정서를 순화시켜 준다.

○ 정원을 가꾸는 동안에 스트레스는 자연스레 풀어지고, 식물을 가꾸는 기쁨은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라고들 한다.

○ 이처럼 정원과 정원문화는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는 아름다운 골목정원, 한평정원으로 확산되어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순천'을 만들어 줄 것이다.

○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순천시가 지난해 제1회



전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계기로 명칭을 바꿔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개최한다.

▲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

- 순천시는 정원문화의 인식 확산과 생활 속 녹지공간의 활용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순천만정원 나눔숲 일원에서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개최한다.
- 한평 정원 디자인전은 요즘 주거 형태에 맞게 작은 공간에서 적은 투자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는 경연대회이다.
- 올해 한평정원 디자인전은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여 개최하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 콘테스트로의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명칭을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 전'으로 변경했다.
- 개막식과 한평정원 전시경연, 부대행사 등으로 열린다.
- 한평정원 전시경연은 '행복한 삶, 나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60개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 그동안 참여를 희망하는 147개 팀에서 디자인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가부 10팀, 학생부 25팀, 일반부 25팀 60개 팀을 선정하고 8월 25일부터 정원 조성을 시작했다.
- 작가부의 경연 주제는 '순천만정원 익숙함과 새로움', 학생부는 '호기심', 일반부는 '행복 느낌, 생활 속 정원'으로 진행됐다.
- 시상식은 우수작은 대상(행정자치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청장상), 최우수상(도지사상) 우수상, 장려상(순천시장상) 등 상훈 수여와 함께 총 5000여 만원에 달하는 상금과 부상이 입상자들에게 주어진다.

- 개막식은 다음달 5일 생태체험장 입구에서 경과보고와 한평정원 투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부대행사로는 베란다 정원 만들기 시범 쇼케이스 행사, 참여작가 정원이야기 산책, 개방정원과 연계한 오픈가든 투어, 시민정원문화 포럼 개최, 정원관련 용품 전시 등이 준비되어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전을 통해 정원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생활속 작은 정원에서 행복을 가꾸는 정원문화를 실천하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평정원 조성 등 정원문화 확산

- 순천시는 도시 전체가 정원인 순천을 위해 시민의 삶 속에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 조성, 정원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심 속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평정원 가꾸기는 도심 속 마을, 골목길, 자투리 땅 등에 조성하는 시민참여형과 학교, 상가,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테마형으로 구분하여 29개소에 조성했다.
- 한평정원 관리를 위해 1정원 1담당제를 운영하여 전수조사 실시와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 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가드너 양성을 위한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한평정원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민정원네트워크와 학생, 생산농가가 함께하는 한평정원 꾸러미 시범 육성 사업을 실시 정원 조성에 필요한 물품 디자인과 제작 및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등 실내 공간에서 가꾸기 쉬운 식물과 소품을 이용한 '베란다 정원' 특강을 3회에 걸쳐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순천 시민 모두를 시민 정원사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내년에는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기초강좌와 심화과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강사를 활용한 어린이 정원사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정원이 있는 곳에 살기 위해 도시를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 속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는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에 오면 이웃과 소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순천시농업기술센터

■ 최고품질 단감생산 현장 교육

- 농업인 기술수요 파악 맞춤형 교육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지난 9월 3일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품질 단감생산을 위한 시범농가, 인근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교육은 과실 안정 생산을 위한 후기 과원관리, 저장양분

축적 및 가을 뿌리 신장 촉진을 위한 가을비료 시용, 후기 병해충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 2015년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은 FTA 대응 과종별 최고 품질 기준에 맞는 과실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단감, 배, 포도 등 3과종 5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핵심기술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현장교육을 격월제로 추진하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전남의 단감재배면적이 3,477ha로 전국 12,455ha의 27.9%를 차지하여 앞으로 최고품질의 단감을 생산하면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생육후기 과원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특별팀(TF)', 對중국 수출애로 해소
 - 농식품부, 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8.3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구성된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특별팀(TF)'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번 간담회는 한-중 FTA 비준 절차를 앞두고 對중국 농식품 수출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특별팀(TF) 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 특히 금번 간담회에 앞서 8.26일(수)에는 서울에서 부처합동 'FTA 활용 농수산물 수출업체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고, 8.29일(토), 중국 청도에서도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출업체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 금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對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농식품부)'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KREI)'에 대한 안건 보고 하였다.
- 농식품부는 10월중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위마이왕(B2C)'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시안(9월)·충칭(11월)에서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상품전'(K-Food Fair)을 개최할 계획이다.
 - 청도 수출 물류기지(8.28 개소식)를 거점으로 중국내 7개 공동물류 센터를 연계하고, 기업유통망 등을 활용한 수출확대도 추진해 나간다.

- 또한 검역·통관 등 對중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식품 SPS 협의회’(15.3월 구성)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농수산물식품 비관세장벽 정보공유 시스템’도 10월중 구축할 예정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위안화 환율하락이 단기적으로 농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환율하락의 배경이 된 중국의 경기침체가 오히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주요 수출애로·건의사항) 그리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들(㈜담터, NH무역, IKG코리아, 정식품, ㈜대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날 토론에 참석한 A업체는 중국의 식품 영양정보, 성분 등 라벨 표기 사항이 우리나라 규정과 달라 중소 수출업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B업체는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외에도 전광판·TV·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우리 농식품을 중국에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C업체의 경우 중국의 농식품 통관 거부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과 식품성분·라벨표기 등 농식품 수출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식품 관련 법률·제도, 상품분석·홍보 분야의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사업을 도입·추진키로 했다.

- 또한 전광판·TV매체·온라인 등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 하는 한편, 현지 법률·제도 자문을 위한 지원사업을 도입 하고, 주요 수출국의 통관 거부사례도 수집하여 농수산물수출 지원정보(KATI)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수출현장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논의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산 참다래 품종, 로열티 받고 수출

- 우수성 인정받아 20년간 총 140억 원 로열티 수입 기대 -

○ 국산 참다래 품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약 20년 동안 품종 개발에 노력한 결과, 우수한 품종 개발과 더불어 로열티(사용료)를 받고 우리 품종을 수출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 그 중심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 개발한 국산 참다래 품종이 있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참다래 육종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농촌진흥청에서는 17품종을 육성했다.

○ 이 중 국내 자급률 향상에 큰 공헌을 한 품종은 국산 골드키위 1호

품종인 ‘제시골드(2002년 개발)’와 조생종 ‘한라골드(2007년 개발)’다.

-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이 품종들은 뉴질랜드 품종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재배가 쉽다. 또,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며 제주도는 물론, 남부지방에서도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제시골드’와 ‘한라골드’는 국산 과수 중 처음으로 2010년 참다래 원산지인 중국에서 품종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에 수출했다.
-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수출해 우리나라는 로열티를 주는 나라에서 로열티를 받는 나라가 됐다.
- 중국에 수출한 묘목이 성목(나무가 다 자람)이 될 때 연 5억 원씩, 20년간 총 100억 원의 로열티 수입이 기대된다.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콩과 싱가포르에 국산 참다래 품종인 ‘제시골드’를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 국산 참다래 품종 보급률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06년 0%에서 지난해 20.7%까지 늘었으며 2017년 23%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로열티 절감액은 2010년 1.6억 원에서 2013년 11.3억 원, 2017년 이후에는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 농촌진흥청 남해출장소 김성철 박사는 “국산 참다래 품종의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3번째 참다래 수출국이 됐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의 해외 로열티 수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aT,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

-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할랄시장 개척의 발판 마련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 사무소를 설치하고 9월 1일 11시(현지 시각) 개소식을 개최했다.
- 이번 개소식에는 권해룡 주 UAE 대사, 후메이드(Humaid Al-Hammadi) 한-UAE 우호협회 회장, 살림(Salim M.A) 루루마켓 총괄이사, 이영규 UAE 한인회 회장, 신동철 아프리카·중동한상 연합회 회장 등 다수가 참석했다.
- 중동지역은 한국 기업들이 1970년대 건설분야로 진출하면서 이른바 ‘중동 붐’을 일으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된 지역이다. 또한 최근 급성장세에 있는 할랄식품의 대표 시장이기도 하다. aT는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식과 더불어 현지 대형 유통업체인 알마야(AL MAYA)와 MOU를 체결하여 중동지역에서 생산한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유통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재수 aT 사장은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는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거점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식품을 널리 알리고 중동지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제2의 중동 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 유기농 쌀 인기 높아진다

- 적극적 판촉 결과 수도권 한식당·학교급식 기업체 구내식당 공급 확대 -

- 전라남도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유기농 쌀 판촉활동을 펼친 결과 수도권 어린이집과 한식 전문식당의 유기농 쌀 사용 업소가 늘고, 기업체 구내식당에서도 유기농쌀 급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 한식 레스토랑인 '콩두'와 서울시청 인근 한정식 전문식당인 '달개비', 홍대 입구의 유기농카페 레스토랑인 '수카라'에 담양 창평농협과 해남 옛고을영농조합에서 전남 유기농 쌀 8톤을 공급하고 있다.
- 업소 이용객들로부터 밥맛이 좋다는 입 소문이 퍼져 전남 유기농 쌀의 판로 확대와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들 업소에 '전남 유기농쌀 사용업소'임을 홍보할 안내판을 제작해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기업체 구내식당에서도 전남 유기농 쌀 구매가 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 KPS'는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유기농 쌀이 일반 쌀에 비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나주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로 급식하기로 결정했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한전 등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기농 쌀 공급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소재 75개

초등학교·어린이집에 유기농 쌀 137톤이 공급되고 있다.

- 또한 전라북도가 2016년부터 전북도내 초등학교에 유기농 쌀을 공급할 예정인 점을 감안,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단계별로 유기농 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는 지난달 28일 시군 담당자와 농협, 영농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기농 쌀 판매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해 서울시와 광주시 등 타 시도 학교 급식에 유기농 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자매결연 지자체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기업체·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전남 유기농 쌀로 추석 선물하기 운동을 벌이는 등 판촉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 쌀을 구매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생산비 절감과 농부증 예방 효과 뚜렷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이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이 농작업 편이성 도모와 작업능률 향상 등 생산비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농부증 예방과 농업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부증 예방을 위해 농작업 유해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추진했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42개소를

평가한 결과, 1인당 연간 농작업 노동시간이 477시간에서 222시간으로 54%정도 단축되었고, 농업인의 농작업에 대한 피로증상이 65%정도 감소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4.6점(5.0척도기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은 금년에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3개소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21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8개소 등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신삼식 기술지원국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농작업의 편이성을 높이고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콩 부산물, 갱년기 증상 개선 식품 소재로 개발

- 동물실험 결과, 폐경기 골다공증, 고지혈증 개선효과 확인 -

- 영양가는 높지만 쓰고 비린 맛 때문에 버려졌던 콩 부산물 배아를 갱년기 증상 개선 효능이 뛰어난 식품 소재로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두유 등 콩 가공제품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배아를 이용해 기능성이 향상된 ‘콩 발아배아 추출물’을 개발하고, 동물실험을 통해 이 추출물이 여성 갱년기 증상인 골다공증과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콩 발아배아 추출물’을 폐경기 증상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유발한 쥐에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뼈 형성 비율은 약 26%, 뼈 두께는 약 42%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 또한, 갱년기에 많이 발견되는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고밀도콜레스테롤 대비 총 콜레스테롤 비율도 약 22% 줄었다.
- '콩 발아배아 추출물'은 콩 배아를 20℃의 흐르는 물에 24시간~36시간 담가 발아하면 말린 다음 알코올(발효주정)로 추출해 분말로 만들었다.
- 분말로 만든 발아배아 추출물은 연한 오렌지색이며, 물에 잘 녹아 다양한 형태의 건강식품으로 가공하기 좋다.
- 이 추출물은 짝을 띄우지 않은 배아 추출물 보다 당 함량을 약 1/3로 낮추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이소플라본 함량은 약 21.8% 높였다.
- 추출물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1g당 약 32m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 기준량인 24mg~27mg보다 높다.
- 또한, 사포닌 함량도 배아 추출물보다 65% 높였다. 특히, 배아가 발아하는 과정에서 A계열 사포닌 함량이 낮아지고, 생리활성이 더 높은 B, E계열의 사포닌 함량이 높아지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는 학술적인 성과를 거뒀다.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해 국내특허를 출원(제10-2014-0128945, 제10-2014-0128942)하고, 이번 달 국제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
- 콩 발아배아 추출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00)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두유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콩 배아는 연간 290톤 이상으로, 이를 활용해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등이 개발될 경우 자원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갱년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임상중 원장은 “이 기술은 콩에서 배아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식품제조업체나 제약회사에서 바로 실용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종 기능성 식품 개발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귀뚜라미, 우리 식탁 먹거리로 오른다

- 귀뚜라미, 네 번째로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

- 지난해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애칭), 꽃벙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애칭), 올해 6월 장수풍뎅이 애벌레에 이어 귀뚜라미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사육 귀뚜라미에 대한 사육체계 개선, 분말 가공 조건 확립, 영양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를 통한 무독성 입증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9월 3일 한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있도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 인정은 귀뚜라미의 특유 냄새를 제거하고 식품으로서 향미를 늘리기 위해 절식·세척·살균·동결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귀뚜라미 자체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귀뚜라미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건조 분말은 단백질 64.4%, 지방 14.4%, 탄수화물 13.3%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감칠맛의 대표성분인 글루탐산 함량도 13.8%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린, 루이신, 이소루이신이 해당되는 분지아미노산(branched chain amino acid)도 17.3%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무기질로는 칼슘과 인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D, B1, B2도 풍부했다.
- 또한 쥐에 귀뚜라미 엑기스 4주간 반복투여 독성 시험한 결과, 무독성으로 나타나 안전성이 입증됐다.
- 한편, 메뚜기나 누에 번데기는 오래 전부터 식품원료로 이용됐으나, 과학적 안전성 입증을 통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은 지난 2014년 7월 및 9월에 등록된 고소애 및 꽃벙이, 2015년 6월에 등록된 장수풍뎅이 애벌레에 이어 네 번째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안미영 연구관은 “귀뚜라미가 한시적 식품 원료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귀뚜라미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친환경 윤작재배에 알맞은 풋거름 작물 심으세요!

- 국내 자생 및 수입 풋거름작물 활용기술 개발, 생태보전형 윤작재배 적극 지원 -
- 경북농업기술원은 도내 친환경농가의 생태보전형 윤작재배를 위해 순환농업에 적합한 풋거름작물을 선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기농업과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풋거름 작물의 효과 및 이용 연구를 통해 순환,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추구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사계절 이용 가능한 풋거름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기능성, 최적 품종, 혼파의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 최근 유기농업연구소에서도 풋거름 작물을 순환농법에 적합하게 국내에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작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외국에서 도입된 풋거름작물로는 콩과와 화본과로 나누어

지는데 콩과에는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 자운영, 살갈퀴, 완두콩 등이 있으며 화본과에는 호밀, 보리, 수단그라스, 옥수수,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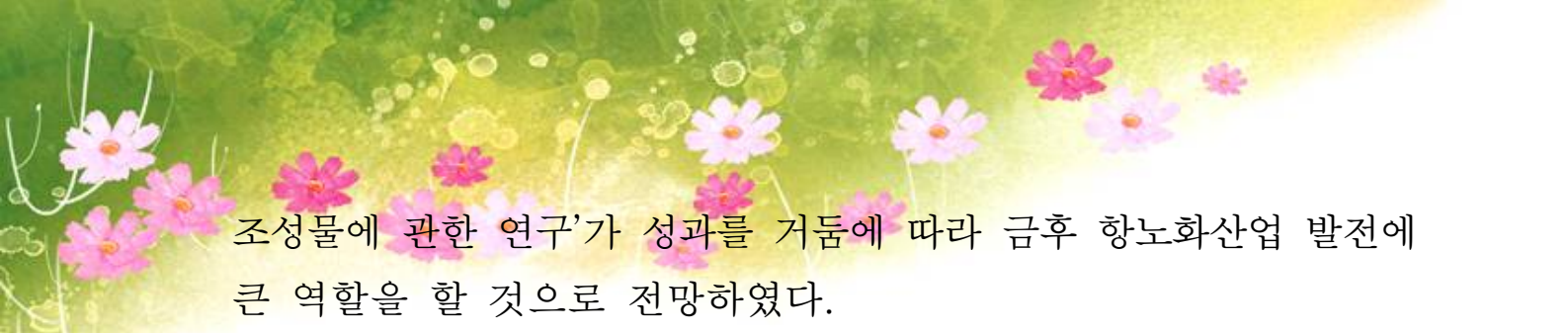
- 그리고 경관겸용 풋거름작물로는 크림손클로버, 메밀, 황화초, 파셀리아, 네마장황 등이 있다.
- 국내 자생식물을 활용한 풋거름작물 연구에서는 살갈퀴, 얼치기 완두, 새완두, 등갈퀴, 애기똥풀, 광대나물, 쥐보리 등을 대상으로 시험했으며 이중에 살갈퀴, 새완두가 생체량과 피복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마늘 유기재배시 풋거름을 환원했을 때 마늘 수량을 비교한 결과, 수단그라스(6톤/10a), 청갯(5.6톤/10a)을 풋거름작물 처리했을 시 높게 나타났고 배추재배(4.7톤/10a)는 낮았다.
- 또한, 풋거름작물을 계속 재배할 경우 수량 증대와 병해발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동환 연구개발국장은 “도원에서는 친환경 농가들을 위해 국내 자생 풋거름작물 활용과 시설재배지 후작용을 위한 수입 풋거름작물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도내 친환경농가에 생태보전형 운작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한방복합추출물 기억력 장애와 치료 효능 입증

-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성과 도출 산업화 기여 -

-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소장 장사문)는 마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 ‘한방복합추출물을 이용한 기억력장애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연구'가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금후 향노화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번 연구를 통하여 참당귀, 원지, 석창포 및 백복령의 한방복합추출물이 기억력 증진 및 인지능력 증진 효과가 우수하여 학습장애 또는 기억력 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지리산 자락에서 나는 참당귀, 석창포, 백복령, 원지(수입산) 약재 대상으로 이미 다양한 약리효능이 알려져 있지만, 이들을 모두 함유하는 한방복합추출물의 학습장애 또는 기억력 장애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착안하여 부작용이 적고 학습 장애 또는 기억력 장애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복합추출물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 본 연구의 성과는 차별화된 한방복합추출물의 제조방법으로 열수추출방식을 벗어나 각 재료를 온탕추출 또는 상온 진탕추출하여 조추출물을 얻어서 감압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분말형태로 제조한 다음 각각 1:1:1:1의 배합비(g/g 중량비)로 혼합하여 한방복합추출물을 제조하였다는 것이다.
- 이번 연구로 제조한 한방복합추출물에 대해 경구 투여한 쥐의 학습능력 및 기억력 개선 효과를 측정[수중미로(Morris Water Maze; MWM)]한 결과, 대조군(control)에 비해 한방복합추출물을 투여한 쥐의 몸무게가 서서히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한방복합추출물을 7일간 복용시킨 쥐에 대한 MWM 측정 결과를 플랫폼을 찾는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참당귀, 원지, 석창포 및 백복령의 한방복합추출물이 인지능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켜 학습 장애 또는

기억력 장애를 치료하는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함으로써 인간의 인지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맑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기억력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현대인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다.
-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사업인 한방향노화산업에 대한 본 연구성과는 특허출원되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다.

*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2호 발표

- 벼 잎집무늬마름병, 고추 바이러스병,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등 주의보 발표 -

-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9월 3일 벼, 원예작물 및 과수 병해충을 중심으로 제12호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작물별로 주의해야 할 농작물 후기 병해충 정보를 참고하여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벼농사는 도내에서 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중만 생종을 재배하고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발생되기 쉬우므로 발생한 논은 9월 상순까지 방제해야 하며, 비래해충인 흑명나방은 9월 상순경부터 2화기가 시작되므로 피해있이 보이기 시작할 때 벼멸구 및 이화명나방과 동시에 방제하여야 한다.
- 채소과 작물은 고온건조한 기상조건으로 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총채벌레, 담배나방, 응애류 등에 대한 방제가 필요하며. 총채벌레 밀도 증가로 가지과 작물(고추, 토마토 등)의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병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해충의 방제가 필요하다

- 사과, 배, 복숭아 등에서는 고온에 의해 복숭아 순나방, 응애류, 노린재류 등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포장을 잘 살펴 발생 초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갈색날개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산란기이기 때문에 과수포장과 주변 산림 지역을 같이 공동방제해 주어야 한다.
-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에 비하여 병해충 발생이 적으나 농작물 후기 병해충 관리로 수확량이 달라지므로 정밀 예찰과 기상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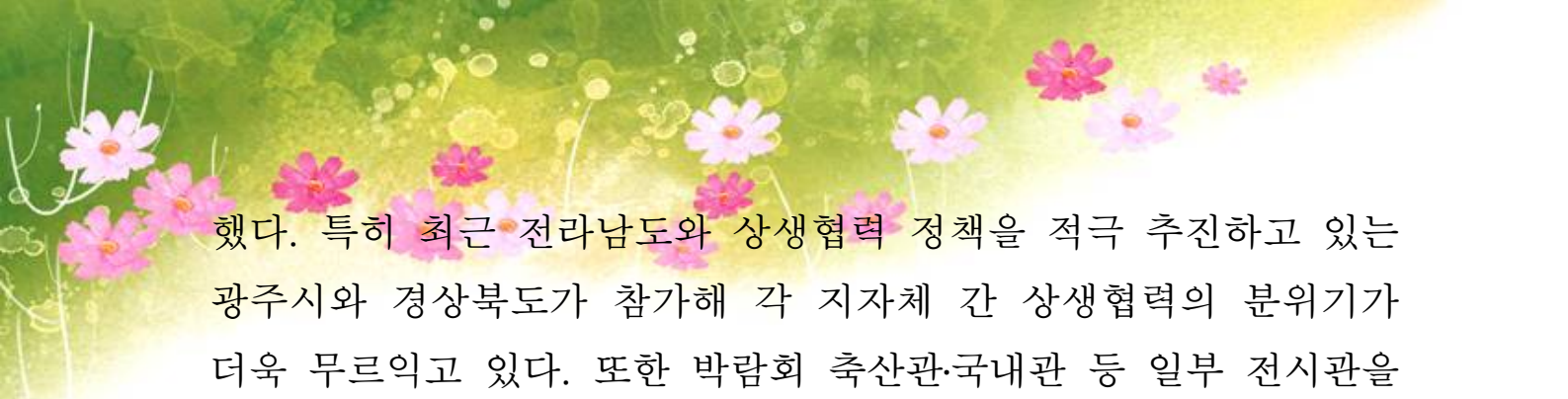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423곳...성공 예감

- 세계 20개국 기관기업 유치해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의 장 기대 -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1일 현재 2015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통보한 기업·기관이 20개국 423곳으로, 당초 목표인 20개국 350곳을 넘어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비즈니스박람회로서 성공 개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012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규모(420곳)를 넘어선 것으로, 현재까지도 참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명실상부 국제행사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됐다.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가 그동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 각국의 주한외국대사관과 유관기관, 전라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유치 및 해외 바이어 초청 활동을 펼치고, 박람회 해외기업 유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 그동안 국내 유치분야의 경우 국내 농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축적된 각종 기관단체네트워크를 활용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삼고초려의 정신으로 직접 발로 뛰며, 관계자 면담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다.
- 그 결과 KT,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이베이코리아, 아이쿱생협 등 329개 업체들이 참가를 결정



했다. 특히 최근 전라남도와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경상북도가 참가해 각 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고 있다. 또한 박람회 축산관·국내관 등 일부 전시관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마감됐는데도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조직위 관계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 국제관에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20개국 79개 농기자재, 농자재 기업들이 참가를 확정지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의 화훼산업협회·난초협회·타이난농업위원회와 중국 지린성과 옌벤주의 농업위원회, 파키스탄 농업협회 등 15개 기관 단체들도 참가해 자국의 농업 발전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막일인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제비즈니스데이를 운영해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전남지역 우수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바이어들과 유통업체들도 적극 유치해 이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한다.
- 한편 2015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주 산포면 소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21세기 미래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적 농식품과 농기자재 기업·기관들을 유치해 세계 농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으로 치러진다. 또한 농업 관련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해 농업인은 물론 도시 소비자와 어린이·청소년들을 비롯한 관람객들을 만족시킬 프로그램 등 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 유기농, 수도권 소비자 산지체험 활발

- 전남도, 4일 생태유아공동체 초청해 우수 농특산물 소개 -

-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지난달 목동아파트 연합회 주민을 시작으로 수도권 소비자 단체 등을 초청, 안전하고 우수한 전남 농특산물 산지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4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관계자를 초청해 유기농 쌀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를 방문하는 등 산지 체험행사를 가졌다.
- 산지 체험행사는 소비자들이 농특산물 생산 환경과 제조 과정 등을 견학하고 그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체험함으로써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또한 생산자는 직접 생산·가공한 제품을 제공, 전남의 풍부한 인심을 보여주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고정 고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자 확보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는 2012년부터 전남에서 생산한 유기농 쌀, 돼지고기, 고구마 등 농산물을 매년 6억 원 가량 구입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친환경 공공급식을 실현하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와 감사 편지를 전달했었다.
- 박경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산지 체험행사 이외에도 대도시 특판행사 및 TV홈쇼핑 방송 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후속조치,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 조성

- 농식품부·GS·전남창조혁신센터 참여, 120억원 투자 MOU 체결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투자활동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와 GS그룹(GS회장 : 허창수)은 농어업벤처육성의 허브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벤처·창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GS그룹은 농업 분야의 획일적인 정부 보조, 융자 지원으로는 농업·농촌 투자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여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 특히,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 관련 기관이 농업전문기관 간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활동, 사업성 평가 결과, 컨설팅 내용 등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식품부, GS리테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투자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MOU기관 : 농식품부, GS리테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펀드운용사

○ 아울러, GS리테일은 자본금 투자뿐만 아니라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의 투자 대상 농식품경영체의 유통·판로 등을 지원하게 되어 농식품경영체가 조기에 사업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에 결성하는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농식품경영체와 초기 농식품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투자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농식품펀드

와는 운영방식을 대폭 차별화하였다.

- 먼저,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 투자대상은 R&D를 통한 기술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가치창조를 모색하는 사업 준비 단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농식품 경영체와 우수기술 보유 농식품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둘째, 공격적인 창업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펀드 운용사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해 기준수익율(3%→ 0%이상) 및 우선손실충당금 비율(5% → 면제) 등 기준을 완화하였다.

* 기준수익률 : IRR0%이상(IRR, 내부수익율: 투자금의 현재가치와 미래유입가치 동일)

* 우선손실충당금비율 :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운용사가 1차적으로 충당하는 비율

<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 >

- 투자대상 : 농식품 R&D 기반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창업인, 3년미만 경영체
- 결성금액 : 120억원(모태펀드 70, GS리테일 30, 운용사 20)
- 선정기준 :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시장분석의 타당성 등

-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990개팀이 참가하여 지역예선을 진행 중인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의 왕중왕전 입상자에게는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우선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식품 창업의 붐을 확산할 계획이다.

* 농수산식품창업콘테스트 : 지역별예선(9.2~14), 전국본선(10.6~7), 왕중왕전(10.28)

※ 9.2일 관련 보도자료 기 배포(제목: 농식품 창업 스타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 시작)

- 농식품부는 GS그룹이 농업·농촌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앞으로 추가적인 대기업·중견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사 1촌운동'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GS는 농수산, 관광, 바이오화학 벤처 창업 활성화와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등 계열사와 전라남도, 성장사다리펀드, 농식품모태펀드 등이 출자하여 총 1,39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부가가치 농수산 벤처 창업과 청정 자연 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GS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맞추어 계획했던 대규모 펀드 조성도 본격화 해나갈 예정이다.
-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펀드 이외에도, 농수산·관광·바이오 화학 벤처 투자펀드 및 바이오화학 특화펀드, 전남지역 친환경 농수산 기업 융자보증펀드 및 창업·중소·벤처기업 융자펀드 등을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설빙·농정원, 쌀 소비 촉진 위해 손잡다!

- 2015 미(米)라클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쌀 디저트 시판을 위한 MOU 체결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9월 3일(목),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 및 코리안 후식(디저트) 카페 (주)설빙과 쌀 소비촉진 및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쌀과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실제 제품 판매까지 이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농식품부와 농정원이 '2015 미(米)라클 사업(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쌀 후식(디저트) 총 7종 중 2종이 설빙의 실제 차림표(메뉴)로 재탄생하여 소비자들과 만나게 됐다.
- 농식품부는 그 동안 쌀 소비촉진을 위해 '미(米)라클 사업(프로젝트)' 등 쌀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올해는 밥보다 후식(디저트)을 선호하는 20~30대 젊은 소비자들에게 맞춰 쌀로 고급스러운 후식(디저트)을 만들고 쌀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집중했다.
- '2015 미(米)라클 사업(프로젝트)'는 '쌀에 맛있는 기적을 더하다'라는 표어(슬로건)에 걸맞게 쌀이 다양한 후식(디저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쌀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일회성 차림표(메뉴)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쌀 소비와 연결시키기 위해 시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림표(메뉴)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에는 설빙에서 무료 시식회를 통해 소비자 반응도 확인했다.
- 소비자 호응을 높이기 위해 유명 전문요리사(셰프)(김호윤, 루이강, 이원일)가 쌀 후식(디저트) 조리법(레시피) 개발에 참여했으며,
- 인절미, 가래떡 등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한 디저트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도 후식(디저트)으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코리안 후식(디저트) 카페 (주)설빙이 동참하게 됐다.
- 지난 7월 쌀 후식(디저트) 차림표(메뉴) 7종이 개발됨에 따라, 8월에는 설빙 건대 직영점에서 대국민 쌀 후식(디저트) 무료 시식회를 진행하였다.
- * 선호도 결과, 김호윤 전문요리사(셰프)의 ▲떠먹는 쌀 스펀지 컵케이크, ▲싸르르르 빙수, 루이강 전문요리사(셰프)의 ▲라이스 파르페, 이원일 전문요리사(셰프)의 ▲누룽지 스콘이 높은 점수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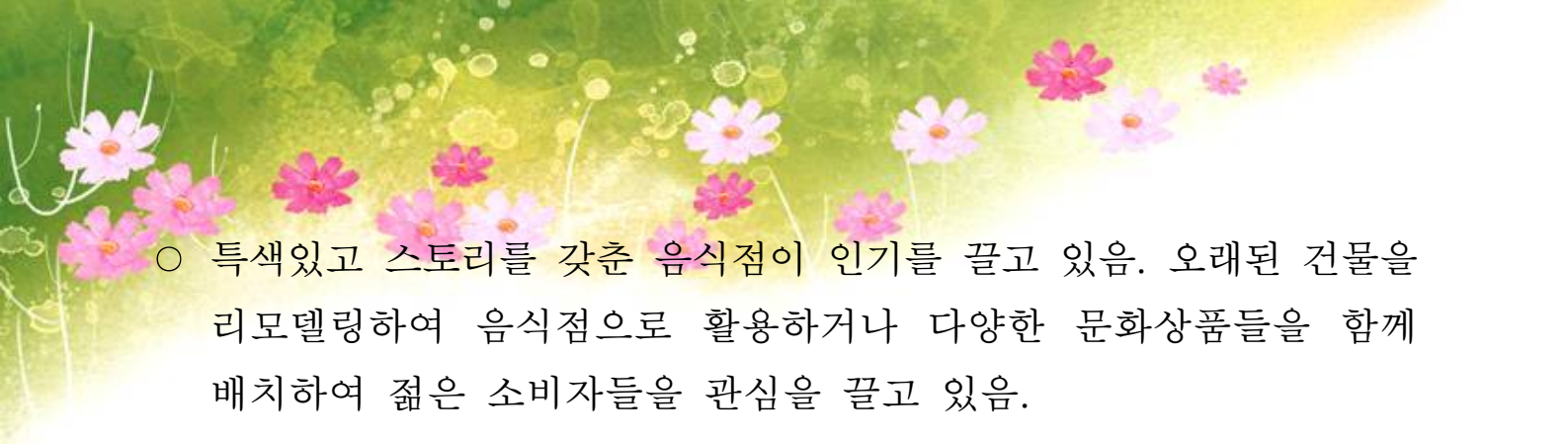
-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시 쌀 후식(디저트) 7종 중 설빙 연구개발(R&D)팀에서 조리법(레시피)를 보완하여 상용화가 결정된 차림표(메뉴) 2종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쌀 후식(디저트) 차림표(메뉴)는 10월 중 전국 설빙 매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설빙은 쌀 후식(디저트)뿐만 아니라 제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차림표(메뉴)를 출시하고 있으며, 설빙 정선희 대표가 차림표(메뉴) 개발 과정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주로 밥으로 소비하던 쌀을 쌀빙수, 쌀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및 홍보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박철수 농정원 원장은 쌀 후식(디저트) 판매와 신메뉴 개발을 추진하는 설빙에 감사를 전하면서, “농정원에서도 다양한 홍보 지원과 함께 쌀 소비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정선희 설빙 대표는 “미(米)라클 사업(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쌀 후식(디저트) 차림표(메뉴)를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게 되어 기쁘다”며 “쌀 소비촉진은 물론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차림표(메뉴)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대만, 외식산업 동향

- 대만에서는 매주 1회 이상의 외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건강하고 고급화된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임.
- 대만 요식업은 2015년 상반기 기준, 2.2% 성장을 보임. 그 중 식당업은 2.2%, 음료는 2.0%, 기타 음식업(학교나 회사 구내매점을 포함)은 1.9% 증가세를 보임.
- 또한 최근 깨끗하고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해외 유명 브랜드 음식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만 식품시장은 1980년부터 끊임없이 불량식품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방부제 과다 함유 두부, 농약 잔류 찻잎이 다량 함유된 음료, 공업성분 염료 사용 등의 식품 관련 사건이 발생함. 이에 외식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집밥보다 외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대만에서는 건강한 재료와 맛을 추구하는 건강 식단 열풍이 불고 있음.
- 식품안전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져 식재료의 원산지, 식품 성분표기 및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 웰빙, 무첨가물, 천연 및 유기농 등 양질의 식품을 선호하는 등 소비 습관이 점점 변화하는 추세임. 또한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식당이 증가하고 있음.

- 
- 특색있고 스토리를 갖춘 음식점이 인기를 끌고 있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음식점으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문화상품들을 함께 배치하여 젊은 소비자들을 관심을 끌고 있음.
 - 미술랭 가이드에 수록된 해외 고급식당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일본식 고급요리 전문점 ‘류긴(祥雲龍吟)’, 홍콩 음식전문점 ‘팀호완(添好運)’, 베이징 궁중요리 전문점 ‘리 짜아차이(厲家菜)’ 등이 타이베이 내 분점을 오픈함.
 -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 브랜드와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한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로 우리나라 기업 진출의 적기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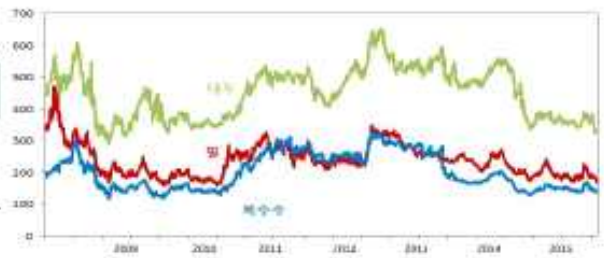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브리핑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9. 7.(시카고 선물거래소)

밀, 옥수수 약세에 투자자들 관심 영향으로 미세하게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9.4)	전일대비	전월평균 ('15.8)	2014 평균
밀	168.14	▲0.3%	183	216
옥수수	137.55	▲0.5%	145	164
대두	322.31	▼0.3%	347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가격연결일: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9월물, 대두: 9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최근연래 최저 가격 가까이 하락세 후 숏커버링과 새로운 계약 등으로 반등에 성공함. 유럽 거래소에서는 이라크 국영 곡물 이사회가 최소 5만 톤의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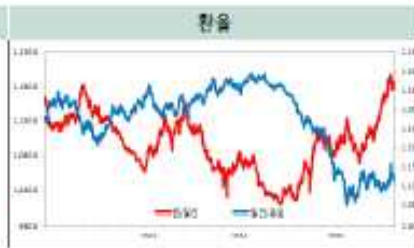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후 숏커버링과 노동절에 따른 휴일 등의 영향으로 반등함. 사실 분석기관인 Informa Economics에서는 옥수수 수확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특히 동부 옥수수 벨트 지역의 수율이 낮을 것으로 보여 반등세 지속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

대두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노동절에 앞서 숏커버링과 최근 미국 대두 수출 판매 등의 영향으로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약보합 마감함. 11월 대두 기준 가격은 주간 1.5% 하락하였고, 9월 대두 혹은 대두박 계약에 따른 선적은 확인 되지 않음.

관련동향 ○ 국제유가는 미 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



구분	곡물 수출가격 (FOB)			구분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4	▲5.1%	환율	원/달러	1187.6	▲0.8%
	옥수수	171	▲3.0%		달러/유로	1.1119	▼0.9%
	대두	358	-	국제유가	WTI	46.05	▼1.5%
	쌀	365	-		Dubai	47.19	▲0.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환(Thailand 100% Grande B), WTI(10월물), Dubai(현물)
 주 2) 기준일은 '15.9.4(수출가격), '15.9.4(환율), '15.9.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주 3) 국제곡물이사회 9/3 수출가격은 영문도 표기 없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년도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

- 개최일시 : 2015. 10. 13.(화) 10:00~17:30
- 장 소 : 농업기술원 연구동 세미나실
- 참여대상 :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
- 주요내용
 - 2016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지원 사업 발표 및 심사
- 지원 사업내용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신품종 투입, 가공 및 유통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 가을바람과 함께 너너해지는 9월 농촌축제

- 축 제 명 : 천생연분마을 연꽃축제(연으로 맺은 아름다운 인연)
- 기 간 : 2015. 9. 5.~9. 6.
-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천생연분마을 일원
- 주요행사 : 연꽃가마퍼레이드, 연음식 콘테스트, 천생연분 이벤트 등
- 문 의 처 : 031-855-6223

- 축 제 명 : 2015 함안 범수산 권역 해바라기축제
- 기 간 : 2015. 9. 5.~9. 6.
- 장 소 : 경남 함안군 범수면 강주리, 황사리 등 5개마을 일원
- 주요행사 : 마을주민 회차(모꼬지) 한마당 축제, 해바라기 축제 등
- 문 의 처 : 위원장 010-7304-1332

주간

전남농업정보 5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

